

北韓의 經濟開放化政策 分析

延 河 清
金 炯 元

本稿에서는 최근 北韓의 對西方 合營努力 및 貿易擴大政策으로 대변되는 開放化政策의 現況과 그 問題點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北韓의 經濟活性化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은 中共과 같이 實用主義로서의 修正이나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이 결코 아니고 硬直된 北韓經濟의 構造的 沈滯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즉, 官僚的 中央集權經濟運用方式을 따르는 北韓의 경우 經濟開放의 先行要件인 私的所有制度의 部分的 許容과 經營管理改善 등 어느 정도의 市場機能導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西方과의 合作投資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北韓의 産業은 對外競爭으로부터 보호되어 왔기 때문에 比較優位에 의한 國際的 專門化를 이룬 경험이 없고 外貨不足, 技術落後, 社會間接資本 未備 등 제반 制約要因으로 北韓의 貿易增大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北韓의 이러한 動向의 대표적인 예로는 合營法制定 및 貿易擴大政策으로 대변되는 開放化政策, 住民生活水準의 向上을 도모하기 위한 輕工業 및 서비스部門 育成政策, 企業의 獨立採算制導入 등 經濟管理體制의 合理化政策, 그리고 科學技術發展政策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合營法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다 債務問題로 인한 對外信用失墜 및 北韓商品의 對外競爭力 缺如 등으로 貿易擴大, 특히 對西方 貿易擴大는 그다지 기대할 수 없어 北韓의 開放化政策은 담보상태에 있

I. 序 論

中央統制的이고 閉鎖的인 經濟體制를 고수해 왔던 北韓은 1984년부터 전반적인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근 中共, 蘇聯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 대부분이 經濟活性化를 위한 經濟開放 및 經濟改革을 추진하는 것과 그 맥락을

筆者: 延河清—本院 前任研究委員
金炯元—本院 研究員

다고 할 수 있고 消費財產業보다는 여전히 重化學工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당분간 住民生活水準이 크게 향상되리라고는 볼 수 없으며, 獨立採算制導入도 여전히 中央統制의 색채가 강해 指令型計劃經濟에서 指標型計劃經濟로의 移行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經濟管理體制의 合理化는 단지 형식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對西方資本 및 技術導入先이 차단된 상태에서 科學技術의 획기적 발전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1986년 10월에 단행된 政務院組織 및 經濟팀 交替에서 경제개혁이나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한 北韓經濟의 發展展望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최근 北韓의 經濟活性化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그 내용에 있어서나 정도에 있어서 종래의 經濟體制 및 經濟路線의 기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틀」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諸對策을 緩和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¹⁾.

本稿에서는 최근 北韓의 새로운 움직임 중에서 對外開放化政策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合營法의 現況과 問題點을 검토하고, 對西方貿易을 중심으로 北韓의 전반적인 貿易의 推移 및 現況을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北韓의 對外經濟協力推移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合營法의 現況과 問題

北韓은 1984년 9월 8일 最高人民會議 常設

會議 명의로 외국인의 합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26개 조항의 '合作社運營法'(일명 合營法)을 공포하였다. 合營法이 발표된 1984년의 北韓經濟는 第2次7個年計劃(1978~84)의 최종년도 임에도 불구하고 工業 및 農業部門 모두 어떠한 實績發表도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資本·技術導入先도 사실상 폐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北韓이 이같은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合營法을 발표하여 償還負擔이 없는 외국의 합작투자를 유치, 技術 및 資本導入을 시도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北韓은 1984년 1월에 개최된 最高人民會議에서 對外經濟協力對象으로 社會主義國家 및 第3世界 외에 우호적인 서방국가들을 거론하여 北韓社會의 閉鎖狀況을 어떻게든 타개하려는 노력을 보였고, 그 후 黨幹部, 中央 및 地方官僚들을 中共 對外開放化政策의 대표적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深圳經濟特區를 방문케 하는 등의 준비단계를 거쳐 1984년 9월 合營法을 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²⁾.

이와 같은 北韓의 對外經濟政策의 方向轉換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合營法定의 背景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北韓經濟體制는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 즉 閉鎖經濟體制에 따른 資本·技術不足과 對外貿易의 不振, 군사력 위주의 重工業優先政策에 따른 資源配分の 歪曲, 經營管理의 非能率과 硬直性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 경제전반에 걸친 새로운 轉機를 마련해야 할 시급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둘째, 1975년 이후 外債償還延期事態에 직면한 北韓은 西方으로부터의 借款導入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第2次 7個年計劃期間(1978~84)중에는 自力更生の 原則

1) 小村武樹(1987), pp. 26~27 참조.

2) 河合弘子(1985), pp. 20~21 참조.

을 기본으로 불충분한 中·蘇의 對北韓 經濟協力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北韓은 필요한 外貨調達을 위해 상환부담이 없는 외국의 합작투자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이다. 세째, 北韓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³⁾, 1979년 8월 中外合資企業法을 제정하여, 自由貿易地帶인 經濟特區를 설치하는 등 中央集權的 計劃經濟에 어느 정도 市場經濟原理를 導入, 對外開放政策을 시행함으로써 최근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中共의 영향이 컸던 것을 北韓이 合營法을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 들 수 있다.

北韓의 合營法은 合營의 對象, 部門, 出資比率 등에 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않고 平等과 互惠의 原則을 내세우고 있는데, 總 5章 26條로 구성되어 있는 合營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 첫째, 基本事項과 合營對象 및 範圍의

규정으로서 合營對象은 外國의 會社, 企業體 및 個人으로 하고 있는데, 民間企業體나 個人業體가 일체 허용되지 않는 北韓이 法人體와 自然인을 合作對象으로 한 것이 특징으로, 合作會社 設立時 私企業 經營經驗이 전혀 없는 北韓이 어떻게 기업을 경영해 나갈 것인가가 주목된다. 또한 外資導入先으로는 在日同胞를 최대의 資金供給先으로 하여 日本을 포함한 西歐諸國, 각지의 해외교포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合營會社의 組織과 出資對象 및 範圍에 대한 규정으로서 出資範圍를 現金, 現物, 發明權, 技術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세째, 經營活動, 理事會構成 및 外國人從業員問題에 대한 규정으로서 合作會社 形態는 資本主義 民間企業의 대표적 형태인 株式會社이고, 經營은 會社의 理事陣을 중심으로 하도록 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네째, 決算과 利潤配分, 租稅, 合營會社의 解散과 紛爭解決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여기서는 合作會社의 利潤과 從業員의 所得에 法人稅와 所得稅를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1974년 이후 '稅金制度 全面廢止'를 주장해 온 北韓의 既存體制와 상충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北韓의 合營法은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保險問題, 合作投資比率, 理事長選出問題, 海外支社設置問題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北韓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1985년 3월에는 「合營法 實施와 관련된 施行細則」과 「外國人所得稅法」을 발표하여 合營法에 대한 보완책으로 내세우고 있다⁵⁾.

合營法 第1章 第2條는 北韓이 희망하는 合

3) 北韓은 “合營法은 北韓의 自立的 民族經濟路線에 반하지 않고 자립경제를 強化·發展시키는 것으로, 일부국가에서 이를 中共의 經濟特區와 결부시키는 것은 合營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日朝貿易會(1984, No. 297), p.12 참조).

4) 合營法에 관한 구체적인 內容은 다음의 文獻을 참조. EIU(1984, 4), pp.36~38 ; 民族問題研究所(1984, No. 270), pp.51~52 ; 金永圭(1985), pp.170~172.

5) 이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出資比率는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利潤은 出資比率에 따라 분배할 수 있으나 100% 外國人投資는 인정하지 않으며 合營會社의 運營期間은 5년이고 연장 가능하다. 또한 利益金の 海外送金은 銀行口座에 殘高가 있는 한 어떤 제약도 없으며 合作投資를 위한 商品輸入은 關稅가 면제된다. 한편, 法人所得稅는 合作會社 純利益金の 25%로 하되, 會社設立後 3년간은 면제되고 利潤이 적을 경우 3년후라도 免稅惠澤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北韓은 이것이 中共이나 東歐共產諸國보다 유리한 稅制上 惠澤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교또通信, 1985, 3. 29).

作投資의 範圍를 工業, 建設, 運輸, 科學技術, 觀光業 등 5개부門으로 定하고 있는데 北韓의 經濟현실을 고려하여 이들 5개부門의 合營可能性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工業部門에 있어서 重化學工業은 北韓의 市場이 협소하여 수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規模의 經濟를 실현하기 어렵고, 輕工業部門은 北韓의 重工業優先政策과 配給制實施로 인한 消費財產業의 낙후로 정책노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이윤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컴퓨터 및 電子部門 등 尖端產業部門은 현시점에서 北韓에 가장 필요한 合作投資部門이라고 볼 수 있으나 專門經營人의 確保와 技術蓄積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분간 합작이 어려운 형편이고, 建設·運輸部門은 資本懷妊期間이 길고 投資規模가 크기 때문에 투자 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中共의 한 보고서는 1984년 9월 合營法 公布 이후 北韓은 여러 부門에 걸쳐 外國企業과의 合作投資를 유치해 왔으며, 1985년 3월의 「外國人所得稅法」과 「合營法施行細則」의 제정은 이러한 北韓의 合作投資를 용이하게 해주

었다고 분석하고 있다⁶⁾. 그러나 合營法이 발표된 이후 실제로 서방국가와의 合營이 이루어진 예는 在日 朝總聯系 企業과의 合作事業을 포함시키더라도 단지 몇 건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北韓이 西方과 合作投資를 실현시킨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대동강의 羊角島에 건설중인 46층 규모의 국제관광호텔을 들 수 있는데 이 호텔은 프랑스의 「베르나르 캠페농」(Bernard Campenon)建設會社와의 합작으로 양측이 같은 비율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⁷⁾. 이 관광호텔의 건설은 최근 北韓觀光產業의 發展展望에 대해 프랑스측이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이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⁸⁾, 이 호텔건설은 北韓의 觀光部門 合作可能性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까지 觀光產業이 부재했을 뿐만 아니라 관광 자체를 극히 부정적으로 보아 왔던 北韓이 최근 서방의 民間觀光團 入國을 허용한 사실은 이를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⁹⁾.

둘째로 北韓이 合作投資 實現을 본 예로는 北韓의 樂園貿易商社와 在日 朝總聯商社인 朝日商社間의 합작으로 건설한 ‘樂園百貨店’을 들 수 있다¹⁰⁾. 이 백화점은 1985년 2월에 개설되었으며 평양에 본점을 두고 北韓 各地에 31개 체인을 갖고 있는데 취급상품은 모두 日製輸入品이고 北韓에 체류하는 日本人 등 外國人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이 ‘樂園百貨店’이 北韓의 合營希望部門으로 合營法에 명시된 5개부門이 아닌 商業部門인 점을 감안하면 ‘樂園百貨店’의 개설목적은 朝總聯資本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合作會社 設立의 경험과 지식을 얻는 데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세번째로 合作投資의 實現을 본 것은

6) EIU(1986, 1), p. 46 참조.

7) EIU(1985, 3), p. 35~36 참조.

8) 이 호텔은 1987년 9월 完工豫定이었으나 아직까지 이 호텔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은 물론 어느 정도 건설이 진척되고 있다는 報道조차 없는 것으로 보아 건설 자체가 중단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小村武樹(1987), p. 23 참조].

9) 北韓은 최근까지 몇몇 東歐圈國家의 觀光客, 그리고 美國, 캐나다 등에 거주하는 소수 海外僑胞의 친척방문에 한해서만 入國을 허용해 왔으나 1985년 말부터는 西獨, 英國, 홍콩 등 일부 西方國家의 團體觀光客의 入國을 허용하고 있고 최근 1987년 10월에는 日本觀光客의 北韓觀光이 보도되었다[EIU(1986), pp. 63~64 및 韓國日報(1987, 10, 15)참조].

10) 金永圭(1985), pp. 165~189 참조.

1986년 4월 ‘金萬有病院’의 開院을 들 수 있다¹¹⁾. 이는 日本 東京의 ‘西新井病院’과의 合作投資로서 토지와 건물은 北韓側이 제공하고 醫療機器 및 技術援助는 ‘西新井病院’ 측이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朝總聯과의 合作投資의 예로서는 1986년 9월에 설립된 만경대 알루미늄 「도어」제조공장 등을 들 수 있으며 北韓當局과 朝總聯間에 合作會社 運營機構의 設立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¹²⁾. 네째로 1987년 4월 이후 北韓은 1,000톤의 매장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운산금광재개발을 위해 日本 三井商社와 合作投資事業을 협의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연간 300kg에 불과한 金生産量을 1988~89년에는 연간 1톤씩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향후 10년 후에는 연간 10톤씩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¹³⁾.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 것은 없지만, 北韓은 日本과 南浦金屬工場, 이탈리아企業과 鑛物輸出에 관한 合作投資, 프랑스와 人工衛星中繼所, 술·음료수工場, 西獨과 鋼鐵産業, 스웨덴과 家具工場, 홍콩과 합홍타이어工場 등 현재 서방국가들과 30여건의 合營交涉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으나¹⁴⁾ 실제로 합작투자가 실현된 것은 없고 현재까지의 合營은 在日 朝總聯系 企業과의 合作事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北韓의 對外開放化政策을 대표하

는 合營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원인은, 鄧小平의 實用主義路線에 입각하여 對外開放化政策을 추진한 中共과는 달리, 北韓에는 開放化의 先行條件이 형성될 이렇다 할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종래의 自力更生の 自立經濟政策과의 마찰이 對外開放化의 커다란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中共의 現代化戰略은 中央集權的 命令體制에서 市場社會主義로의 분명한 방향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데 반해, 北韓은 社會主義經濟의 基本的 敎理에서 크게 이탈하고 있지 않다. 물론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中共만큼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것이 아니어서 北韓指導層이 여전히 社會主義의 中央統制的 ایده올르기樣式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投資價値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北韓은 市場이 협소하고 資源이 빈약하여 合作投資의 誘因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비용적인 측면에 국한되고 있는데 이것조차 北韓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거의 의미가 없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¹⁵⁾. 한편 外債支拂延期로 인해 對外信用이 실추되었고 北韓이 대부분의 西方國家와 國交가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西方企業의 對北韓合作投資에 불안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官僚的 中央集權經濟運用方式을 따르는 北韓의 경우, 合營法實施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경제개방의 선행요건인 私的所有制度的 部分的 許容과 經營管理改善 등 어느 정도의 市場機能導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서방과의 合作投資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으므로,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北韓 合作投資의 폭과 범위는 크게 확대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11) 日朝貿易會(1986, No. 328), pp. 6~7 참조.
 12) EIU(1986, 4), p. 30 참조.
 13) EIU(1987, 2), pp. 46~47 참조.
 14) EIU(1985, 2), pp. 37~38과 EIU(1985, 3), pp. 35~36 및 EIU(1985, 4), p. 47 참조.
 15) 先進國의 多國的企業이 後進國에 진출하는 이유로는 市場指向的인 것, 資本指向的인 것, 그리고 費用的 側面的의 세 가지 경우를 들 수 있다 (Wilczynski, 1970).

III. 北韓의 貿易現況

北韓은 올해부터 착수한 第3次7個年計劃(1987~93)에서¹⁶⁾ 對外經濟協力 強化方針으로

16) 北韓은 1987년 4월 最高人民會議 第8期 2次會議에서 1987~93년 기간중에 추진될 第3次7個年計劃을 확정하였다. 第3次7個年計劃에서 주목되는 것은 技術革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基本建設, 小賣商品流通額, 貿易額을 제외하고는 종전보다 計劃目標을 낮게 책정한 점을 들 수 있는데, 다른 共產圈國家와 비교할 때 이 목표 또한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 第3次7個年計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日本貿易振興會(1987), pp. 18~38 및 pp. 131~179 참조.

17) 北韓은 自立·內部指向的 經濟政策으로 일관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협소한 국내시장 규모로 각 산업은 생산비가 최저로 되는 最適規模에서의 操業經驗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規模의 經濟가 문제시되지 않았던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는 이러한 市場規模의 制約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으나 산업이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자본집약적으로 됨에 따라 國內需要를 초과하는 大規模操業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北韓의 産業은 대외경쟁으로부터 보호되어 왔고 輸入代替産業에 주력한 결과, 北韓의 産業構造가 비교우위에 의한 국제적 전문화를 이루지 못하여 北韓商品의 對外競爭力이 낮은 점이 北韓의 輸出增大 및 經濟成長의 制約要因이 되고 있다. 또한 北韓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輸出擴大努力이 輸入代替發展戰略을 해외시장을 목표로 하는 輸出擴大政策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고 이는 다만 對外負債를 상환하기 위해, 그리고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西歐의 先進資本 및 技術을 계속 도입하려는 北韓 指導層의 의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8) 최근 勞動新聞(1985. 4. 7)은 “交易의 促進은 北韓의 유일하고 가장 막중한 經濟的 課題”라고 지적하고, 輸出의 增加만이 負債를 청산할 수 있고 이를 위해 貿易規制의 준수, 輸出商品引渡의 날짜 준수 등 對外交易에 있어서의 信用回復을 강조하였다[EIU(1985. 2), p. 37 참조].

19) 北韓과 같이 自國의 貿易統計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交易相對國의 貿易統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나라의 貿易統計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貿易額의 增加目標을 社會總生産의 增加目標(1.8배 증가)를 훨씬 상회하는 3.2배로 설정하여 北韓經濟의 貿易依存度を 높이려는 정책을 택하고 있다. 즉, 北韓은 현재 自立的 民族經濟의 建設을 표방하면서도 貿易 및 對外經濟協力を 통해 資本과 先進技術을 도입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北韓이 국내시장의 규모가 작고 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對內指向的 工業化政策을 취해 온 데서 찾아볼 수 있다¹⁷⁾. 北韓의 對內指向的 工業化는 對外部門의 役割을 한정하여 貿易은 단지 원활한 擴大再生産을 위해서만 최소한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입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國內需要充足에 부족한 商品에 한정시키고 수출은 수입에 필요한 外貨獲得을 위해서만 추진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對內指向的 工業化政策이 지니는 커다란 문제점은 技術進步 및 生産增大를 위해 外貨需要가 필요불가결할 때 수출 이외에는 外換調達方法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産業部門에 걸쳐 技術水準이 낙후되고 生産施設이 노후화되어 資本·施設財 輸入 및 技術導入이 절실히 요구되는 北韓으로서 현재 輸入代金の 마련 및 그동안 누적된 債務辨濟를 위해 輸出增大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입장이다¹⁸⁾.

北韓은 貿易統計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貿易相對國인 蘇聯, 中共, 日本 등에서 발표한 統計資料나 外國研究機關의 研究結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 자료의 推定統計值도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本章에서는 筆者의 集計資料를 이용하여¹⁹⁾ 北韓의 圈域別 輸

出入構造를 살펴보고 北韓의 對西方貿易의 現況과 品目別 輸出入構造를 분석한 다음, 北韓의 對西方貿易에서 나타난 특징을 평가해 보기로 한다.

1. 北韓의 圏域別 輸出入構造

北韓의 지속적인 貿易相對國은 蘇聯, 中共, 日本, 西獨을 포함한 소수국가에 한정되고 있다. 그외에 대부분의 국가와는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交易量이 급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北韓의 總貿易規模가 그다지 크지 않아 이 중 몇몇 국가와의 交易量變化가 北韓貿易規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²⁰⁾.

경우, C.I.F 기준의 輸入額에는 運送料 및 保險料 등의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IMF의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이하에서는 DOT로 사용)에서는 이 費用을 F.O.B. 기준 輸入額의 10%로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北韓의 對西方貿易에 대해서

北韓의 輸出 = 相對國의 對北韓輸入 ÷ 1.1

北韓의 輸入 = 相對國의 對北韓輸出 × 1.1

방법으로 貿易額을 추정했다. 단 對共產圏交易에 대해서는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U.N.의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의 共產圏國家間의 貿易에 관한 統計值도 마찬가지임) 北韓의 輸出 = 相對國의 對北韓輸入, 北韓의 輸入 = 相對國의 對北韓輸出이라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20) 예를 들어 北韓의 對사우디 아라비아 貿易은 1976년까지는 미미했으나 1977년 이후 對사우디 아라비아輸出이 급증하여 1977~81년간 北韓 對西方 輸出의 23.6~48.3%를 차지하였고, 1982년까지 전무했던 쿠웨이트와의 貿易은 1983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1983~85년간 對쿠웨이트輸出의 경우도 對西方輸出의 17.2~22.1%, 輸入의 경우는 對西方輸入의 35.6~37.1%를 차지하였다(附表 3, 4 참조).

21) 非鐵金屬價格의 하락으로 1975~77년 사이 北韓의 對西方圈 非鐵金屬輸出은 金額面에서 30%가 감소하였다[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S. (1982), p.190 참조].

<附表 2>에서 北韓의 貿易規模는 1970년 輸出 3.0~3.7億달러, 輸入 3.8~4.4億달러에서 1979년에는 輸出 11.5~16.5億달러, 輸入 11.6~14.9億달러로 증가하여 같은 기간중 연평균 증가율이 輸出은 16.1~17.7%, 輸入은 13.2~14.5%를 보여주고 있다. 北韓經濟에서 貿易의 役割은 內部經濟의 成長을 위한 보조적 역할밖에 하지 않아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北韓經濟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지만, 北韓의 貿易規模는 그 규모가 최대였던 1980년을 예로 들더라도 輸出 16.4億달러, 輸入 17.1億달러에 불과하여 같은 해 韓國의 輸出 175.1億달러, 輸入 222.9億달러와 비교할 때 輸出은 약 1/11, 輸入은 약 1/13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며 1985년 현재 輸出 12.9億달러, 輸入 19.0億달러로 韓國의 輸出 302.8億달러, 輸入 311億달러와 비교할 때 輸出은 1/23, 輸入은 1/16 정도에 불과하다.

北韓의 圏域別 輸出入構造를 살펴보면 먼저 輸出의 경우(表 1 참조) 北韓의 總輸出은 1970~8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9.2%인데 이 기간중 北韓의 輸出規模는 일정한 추세를 지닌다기보다는 世界經濟與件 및 北韓 內部事情에 따라 커다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70~75년간 연평균 18.8%의 증가율을 보여 주던 北韓의 輸出은 70년대 중반의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한 北韓의 主要 輸出品目인 非鐵金屬價格의 하락과²¹⁾ 6個年計劃(1971~76) 早期達成運動의 後遺症으로 인한 北韓經濟의 침체로 1976~77년은 연평균 7%의 마이너스 成長을 보이다가 1978~80년간에는 金, 銀, 鎳, 亞鉛 등 非鐵金屬價格의 상승 및 開發途上國에 대한 輸出이 크게 증가하여 연평균 29.6% (1978년 58.1%, 1979년 25.1%, 1980년 9.7%

〈表 1〉北韓의 圏域別 輸出, 1970~1985

	蘇聯		中共		東歐		日本		OECD ¹⁾		開發途上國		合計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1970	143.2	(42.0)	54.2	(15.7)	35	(10.3)	31.3	(9.2)	67.0	(19.6)	10.3	(3.0)	341.0	(100.0)
1975	209.7	(26.0)	197.8	(24.5)	75	(9.3)	58.9	(7.3)	102.3	(12.7)	162.2	(20.1)	805.9	(100.0)
1980	437.3	(26.6)	303.3	(18.5)	125	(7.6)	163.7	(10.0)	262.5	(16.0)	349.7	(21.3)	1,641.5	(100.0)
1981	348.1	(32.2)	231.0	(21.4)	81	(7.5)	126.8	(11.8)	62.8	(5.8)	230.3	(21.3)	1,081.0	(100.0)
1982	499.3	(38.8)	304.0	(23.6)	70	(5.4)	138.2	(10.7)	146.1	(11.3)	131.2	(10.2)	1,288.8	(100.0)
1983	437.4	(35.1)	254.3	(20.4)	65	(5.2)	114.7	(9.2)	141.0	(11.3)	232.7	(18.7)	1,245.1	(100.0)
1984	451.0	(35.1)	272.0	(21.2)	43	(3.3)	132.0	(10.3)	151.4	(11.8)	234.7	(18.3)	1,284.1	(100.0)
1985	485.1	(37.7)	244.8	(19.1)	103	(8.0)	163.8	(12.8)	68.5	(5.3)	220.0	(17.1)	1,285.2	(100.0)

(단위 : 百萬달러, %)

註 : 1) 日本은 제외. () 안은 輸出合計에 대한 비율임.

資料 : <附表 1>의 資料 참조.

〈表 2〉北韓의 圏域別 輸入, 1970~1985

	蘇聯		中共		東歐		日本		OECD ¹⁾		開發途上國		合計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1970	230.0	(60.9)	60.9	(16.2)	26	(6.9)	25.7	(6.8)	26.1	(6.9)	8.8	(2.3)	377.5	(100.0)
1974	261.3	(19.3)	243.3	(17.9)	70	(5.2)	277.1	(20.4)	424.6	(31.3)	80.9	(5.9)	1,357.2	(100.0)
1975	258.8	(22.4)	284.1	(24.6)	92	(7.9)	199.8	(17.3)	274.8	(23.8)	45.8	(4.0)	1,155.3	(100.0)
1980	443.1	(25.9)	374.2	(21.9)	122	(7.1)	411.7	(24.1)	137.6	(8.0)	221.7	(13.0)	1,710.3	(100.0)
1981	387.9	(27.4)	300.0	(21.2)	81	(5.7)	320.1	(22.7)	172.6	(12.2)	152.1	(10.8)	1,413.7	(100.0)
1982	438.7	(30.6)	281.4	(19.6)	58	(4.0)	344.5	(24.6)	160.8	(11.2)	152.2	(10.6)	1,435.6	(100.0)
1983	352.2	(21.2)	273.4	(16.5)	58	(3.5)	359.8	(21.7)	147.7	(8.9)	468.0	(28.3)	1,659.1	(100.0)
1984	428.0	(27.8)	226.2	(14.7)	42	(2.7)	280.2	(18.2)	105.6	(6.9)	457.5	(29.7)	1,539.5	(100.0)
1985	785.5	(41.3)	239.0	(12.6)	85	(4.5)	271.8	(14.3)	100.9	(5.3)	417.7	(22.0)	1,899.9	(100.0)

(단위 : 百萬달러, %)

註 : 1) 日本은 제외. () 안은 輸入合計에 대한 비율임.

資料 : <附表 1>의 資料 참조.

성장)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80년대에는 1982년 이외에는 工業成長率에 대한 발표가 없을 정도로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非鐵金屬의 價格도 다시 하락하여, 1980~85년간 輸出은 연평균 4.8%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圏域別 輸出構成比를 살펴보면(表 1 참조), 社會主義圏 貿易에만 의존하던 70년대 초반까지 北韓의 輸出은 蘇聯과 中共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²²⁾ 70년대에 들어서서 北韓이 對西方圏 貿易을 확대함에 따라 日本 및 OECD 등 對西方先進國 輸出이 증가하고 1977년 이후 開發途上國에 대한 輸出이 크게 증가하여 1980년의 輸出構成은 蘇聯 26.6%, 中共 18.5%, 東歐圏 7.6%, 日本 10%, OECD 16%, 開發途上國 21.3%로서 北韓의 對西方圏 輸出은 1971년 21.7% 에서 1980년 47.3%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0년 이후 北韓의 對西方輸出은 다시 감소하여 1985년 현재 蘇聯 및 中共이 北韓 輸出의 56.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輸入規模를 보면 1970~8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1.4%인데 輸出規模와 마찬가지로 輸入規模도 변동이 심하다(表 2 참조). 輸入은 1971~74년간 연평균 37.7%의 높은 성장

을 보였으나 外債償還延期事態에 직면한 1975년 이후 西方先進國으로부터의 輸入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1975~77년간 연평균 17.5%씩 감소하였다. 그 후 西方先進國에 대한 代替輸入先으로서 홍콩과 싱가포르의 등장 및 共產圏으로부터의 輸入增加와 특히 10년마다 개최되는 黨大會가 있던 1980년에는 이를 대비한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해 機械·設備 등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1980년의 輸入은 17.1億달러로 증가하였다. 1981년 이후는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1985년의 경우는 對蘇輸入의 급증으로 北韓의 輸入規模는 19億달러를 기록하였다²³⁾.

輸入構成比를 살펴보면 70년대 초까지는 蘇聯과 中共으로부터의 輸入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여 1971년의 경우 蘇聯 65.8%, 中共 16.9%, 東歐 5.7%, 日本 5.7%, OECD 4.5%, 開發途上國 1.4%였으나 1972년 이후 對西方輸入이 크게 증가하여 1974년의 경우 OECD 31.3%, 日本 20.4%, 蘇聯 19.3%, 中共 17.9%, 開發途上國 5.9%, 東歐 5.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外債問題로 OECD諸國으로부터의 輸入이 크게 감소하고 70년대 후반부터 開發途上國으로부터의 輸入이 증가하여 1980년의 경우 輸入比重은 蘇聯 25.9%, 日本 24.1%, 中共 21.9%, 開發途上國 13.0%, OECD 8%, 東歐 7.1%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1985년의 경우는 蘇聯 41.3%, 開發途上國 22.0%, 日本 14.3%, 中共 12.6%, OECD 5.3%, 東歐 4.5%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北韓의 圏域別 貿易收支現況을 <表 3>에서 보면 1970~85년간 北韓의 貿易收支 赤字規模는 總 39.2 億달러로 日本 19.8億달러, 蘇聯 8.9億달러, OECD 7.7億달러, 中共 6.2

22) 1971년 北韓의 圏域別 輸出構成은 蘇聯 43.4%, 中共 23.1%, 東歐 11.8%, 日本 8.7%, OECD 9.7%, 開發途上國 3.3%로 蘇聯과 中共이 66.5%를 차지하였다.

23) 1985년 北韓의 對蘇輸入은 7.86億달러로 北韓總輸入의 41.3%를 차지하였으며 1986년의 경우는 10.79億달러로 증가하였다(日本貿易振興會, 1987). 이러한 對蘇輸入의 커다란 증가는 北韓經濟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先進技術 및 資本設備의 導入이지만 債務問題로 西方先進諸國으로부터의 輸入先이 차단된 점과 최근 北韓의 對蘇偏重政策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表 3〉 北韓의 圈域別 貿易收支推移, 1970~85

(단위: 百萬달러)

	蘇聯	中共	東歐	日本	OECD ¹⁾	開發途上國	合計
1970	-86.8	-6.7	9	5.6	40.9	1.5	-36.5
1971	-231.0	-21.9	5	-4.5	5.3	2.6	-244.5
1972	-148.6	-45.8	0	-68.0	-2.0	0.3	-264.1
1973	-122.0	-99.2	-1	-44.5	-91.4	-52.4	-410.5
1974	-61.0	-97.0	8	-178.2	-350.1	12.9	-665.4
1975	-49.1	-86.3	-17	-140.9	-172.5	116.4	-349.4
1976	-83.7	-105.0	-24	-40.6	-108.9	29.9	-332.3
1977	-1.0	-80.0	-11	-77.0	-70.0	155.0	-84.0
1978	36.7	-7.1	25	-104.6	-29.8	267.5	187.7
1979	32.0	13.2	4	-174.0	3.3	230.6	109.1
1980	-5.8	-70.9	3	-248.0	124.9	128.0	-68.8
1981	-39.8	-69.0	0	-193.3	-109.8	78.2	-333.7
1982	60.6	22.6	12	-206.3	-14.7	-21.0	-146.8
1983	84.2	-19.1	7	-245.1	-6.7	-235.3	-415.0
1984	23.0	45.8	1	-148.2	45.8	-222.8	-255.4
1985	-300.4	5.8	18	-108.0	-32.4	-197.7	-614.7
合計	-892.7	-620.6	39	-1,975.6	-768.1	293.7	-3,924.3

註: 1) 日本은 제외.
資料: 〈附表 1〉과 동일.

億달러 순인데, 다만 開發國에 대해서는 2.9億달러의 黑字를 보이고 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北韓의 貿易收支赤字는 1970년에 3,650萬달러이었던 것이 1972년부터 급증하여 1974년에는 6.7億달러로 최고 수준에 달하였다.

그 이후 外債償還의 어려움으로 輸入을 감소하고 開發國에 대한 輸出을 증가시켜 1978년과 1979년에는 貿易黑字를 기록하였으나 1980년부터는 다시 赤字로 反轉하여 1985년에는 6.1億달러의 貿易赤字를 나타내었다²⁴⁾.

北韓의 貿易收支를 國別로 살펴보면 日本에 대한 赤字가 제일 큰데 1972년 이후 貿易赤字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1970~85년 동안의 對日本 輸出合計인 15.1億달러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OECD에 대한 赤字는 1973~75년에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후 점차 감소하였다. 蘇聯과 中共에 대해서는 1978년과 1979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貿易赤字를 보여왔으나 長期貿易協定을²⁵⁾ 체결한 1982년 이후 2~3년간은 貿易收支가 黑字로 돌아서는 경향을 보였으며 對開發國의 경우는 70년대 이래 지속

24) 北韓의 1985년 貿易收支(輸入 19.0億달러, 輸出 12.9億달러)는 1984년 貿易收支(輸入 15.4億달러, 輸出 12.8億달러)에 비하여 크게 악화되었다. 이는 蘇聯으로부터의 輸入이 약 84% 증가한 반면 OECD에 대한 北韓의 輸出은 55% 정도 감소했을 뿐 아니라 급작스럽게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5,700萬달러 상당의 穀物을 輸入하게 된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EIU(1986~4), p. 32 참조].

25) 北韓은 1981년 7월 蘇聯과 5년간의 長期貿易協定을 체결하였고, 中共과도 1982년 5년간의 長期貿易協定을 체결하였다. 이의 영향을 받아 1982년의 경우 北韓의 兩國과의 貿易은 前年度에 비해 20.2%가 증가하였고, 특히 輸出은 38.7%가 증가하였다(日本貿易振興會, 1982, 1983a).

적인 赤字를 기록하여 北韓의 貿易收支赤字를 줄이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나 1982년 이후는 赤字를 나타내고 있다.

2. 北韓의 對西方圈 貿易

北韓은 6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기대했던 中·蘇로부터의 원조가 무산되었고 國內産業成長이 둔화되는 한편, 韓國의 경이적인 經濟成長으로 인한 자극 등으로 北韓도 서방세계에 대한 경제적 폐쇄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또한 6個年計劃(1971~76)의 目標達成과 급속한 産業成長을 위한 技術革新을 성취하기 위하여 技術 및 플랜트 등 대규모의 資本裝備를 日本 및 유럽으로부터 수입하였다. 즉, 1970년에 6,060萬달러에 불과하던 北韓의 對西方輸入(全體輸入의 16.1%)은 1974년에는 7億 8,260萬달러(全體輸入의 57.7%)로 같은 기간중 年평균 89.6%씩 크게 증가하였다(附表 1 참조). 北韓의 西方側과의 貿易規模를 살펴보면(附表 1 참조), 1970~74년에 이르는 기간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對西方輸入의 대폭적인 증가와 輸入代金確保를 위한 輸出의 증가로 對西方貿易額은 年평균 57.8%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나, 70년대 중반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北韓의 주요 輸出品目인 非鐵金屬價格의 하락으로 輸出이 감소하고 이로 인한 北韓의 外債償還延期는 北韓의 對西方輸入을 감소시켜 1975~77년 사이의 對西方貿易規模는 年평균 17.9%씩 감소하였다. 한편 1978년부터는 北韓의 對開途國輸出의 증가와 非鐵金屬價格上昇에 힘입은 日本을 비롯한 西方先進國에 대한 輸出增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1980년의 黨大會에 대비,

經濟建設을 위한 設備 및 技術導入 등 輸入增加로 인해 1980년 北韓의 對西方貿易은 15.5億달러(輸出 7.8億달러, 輸入 7.7億달러)로 최고액을 기록하지만 1980년 이후는 北韓經濟의 전반적인 침체와 債務問題로 對西方圈貿易은 輸出 및 輸入 모두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主要 地域別 貿易推移를 보면 北韓의 對 OECD輸入은 1974년에 4.2億달러로 정점에 달해 對西方圈 輸入의 54.3%, 總輸入의 31.3%를 차지하였으나 北韓의 對西方 外債償還延期로 그 규모가 감소하여 1977년 이후는 總輸入의 10%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表 2 참조). 한편 北韓의 對OECD輸出은 北韓의 주요 輸出品目인 非鐵金屬價格이 상승했던 1980년에 2.6億달러로 최고에 달해 對西方輸出의 34.0%, 總輸出의 16%를 차지하였으나 그 이후 점차 감소하여 1985년의 경우 0.7億달러로 總輸出의 5.3%에 불과한 실정이다(表 1 참조).

70년대 후반부터 北韓의 對西方 貿易推移는 OECD 등 先進國에 대한 貿易보다는 開發途上國과의 貿易에서 현저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1974~79년 기간동안 對開途國 輸入은 年평균 15.1%(對OECD輸入은 年평균 10%씩 감소)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輸出의 경우는 年평균 33.3%(OECD에 대한 輸出은 年평균 8.7% 증가)의 높은 增加率을 나타내어, <表 3>에서 볼 수 있듯이 1975~81년간의 對開途國 貿易赤字는 北韓의 貿易赤字를 줄이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北韓의 對開途國 交易強化(특히 輸出)의 要因으로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非同盟圈에서의 리더쉽을 획득하려는 정치적 노력이 北韓의 第3世界에 대

〈表 4〉 北韓의 對日輸出入規模, 1965~1986

(단위: 百萬달러)

	輸入	輸出	合計	貿易收支	對日貿易/ 對西方貿易(%)
1965	18.2	13.4	31.6	-4.8	-
1970	25.7	31.3	57.0	5.6	33.7
1975	199.8	58.9	258.7	-140.9	30.7
1980	411.7	163.7	575.4	-248.0	37.2
1981	320.1	126.8	446.9	-193.3	42.0
1982	344.5	138.2	482.7	-206.3	45.0
1983	359.8	114.7	474.5	-245.1	32.4
1984	280.2	132.0	412.2	-148.2	30.3
1985	271.8	163.0	434.8	-108.8	35.0
1986	202.4	157.6	359.9	-44.9	-

註: 日本大藏省 通關統計를 IMF의 DOT 방식으로 환산한 것임.
資料: 日朝貿易會, 『日朝貿易』, No. 338, 1987.2.

한 貿易 및 援助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²⁶⁾. 또한 北韓의 非同盟圈에 대한 武器輸出도 1975년 이후 증대하고 있다²⁷⁾. 둘째, 경제적 측면으로서 北韓의 2次商品 輸出의 경우 상품의 질이 西歐先進諸國의 상품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西方先進國市場의 進入은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開途國에

대해서는 市場浸透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北韓의 對開途國 輸出構造를 살펴보면 機械類를 비롯하여 시멘트, 纖維 등의 輸出이 순조롭고 아프리카 일부국가에 대해서는 원조적 성격을 지닌 穀物輸出도 행해지고 있으며 홍콩,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주로 農水產品을 수출하고 있다²⁸⁾.

日本은 北韓 對西方貿易의 최대 交易相對國으로서 80년대에 들어와서는 北韓 總輸出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輸入規模에 있어서는 北韓 總輸入의 14~24%를 점유하여 蘇聯 다음가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表 1, 表 2 참조). 특히 債務問題로 西歐先進國으로부터의 輸入이 거의 차단된 70년대 후반부터 對日本輸入은 先進資本主義國家의 先進 技術 및 施設을 도입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역할을 하여 對西方圈 輸入의 절반 가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北韓의 對西方先進國 貿易에 획기적인

26) 北韓은 「티토」 유고슬라비아大統領 死後, 金日成을 非同盟圈의 「리더」(leader)로 삼으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소련서기장 「고르바초프」가 印度를 「非同盟圈의 公認된 리더」로 칭한 사실 등으로 보아 非同盟國家들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日本貿易振興會(1987), pp. 14~15 참조).

27)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의 推定에 따르면 北韓은 第3世界에 대하여 1976년 80萬달러, 1977년 20萬달러, 1978년 70萬달러의 武器 輸出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실제보다 훨씬 낮게 평가된 것으로 여겨진다(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S., 1982, p. 185). 한편 EIU에 의하면 北韓은 1980년 이후 이란에 石油輸入의 댓가로 상당량의 武器를 輸出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EIU, 1985).

28) 日本貿易振興會(1983b), p. 48 참조.

게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表 4〉에서 北韓의 對日貿易推移를 살펴볼 수 있는데, 北韓은 60년대에는 적은 액수나마 대체로 對日貿易黑字를 나타냈지만 對日輸入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197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계속 貿易赤字를 나타내고 있다. 1974년 이후로는 매년 輸入이 輸出의 2배 정도가 되는 輸入超過現象이 심화되었고 특히 1983년에는 가장 심하여 日本에 대한 輸出은 1億 1,470萬달러인 데 비하여 輸入은 3億 5,980萬달러에 달하였다.

貿易赤字規模가 점차 커져 北韓의 對日債務가 약 800億엔에 이르게 된 1976년에는 北韓은 日本에 대하여 債務償還延期를 요청하였고 이에 日本은 1976년, 1979년, 1983년의 세 차례에 걸쳐 債務償還을 연기하여 주었으나 1987년 현재에도 北韓의 對日債務는 약 600億엔에 이르고 있다²⁹⁾. 이러한 債務問題로 인해 현재 北韓 對日貿易의 80%가 日本 朝總聯系商社에 의해 이루어지고 나머지 20%만이 日

本商社에 의해 이루어져 사실상 北韓의 對日貿易은 '朝朝貿易'의 형태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물론 北韓의 對外貿易中에서 日本이 차지하는 비중이 서방국가중에서는 가장 높고 地理的 隣接성과 技術力 등으로 日本은 北韓의 주요 貿易相對國으로 남아 있겠지만, 최근의 경우처럼 日本으로부터의 輸入이 輸出의 약 2배에 이르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日本과 北韓間의 貿易은 어느 정도에 가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3. 對西方圈 貿易의 品目別 輸出入 構造

1980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北韓의 對西方貿易은 감소추세에 있는데(附表 1 참조), 여기서는 먼저 北韓의 주요 31個 西方國과의 品目別 輸出入 構造分析을 통하여³⁰⁾ 北韓貿易構造의 특징을 살펴본 다음 北韓의 對西方圈 貿易擴大努力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對西方貿易이 점점 더 부진해지는 이유를 진단해 보기로 한다.

北韓의 對西方圈貿易에 있어서 品目別 輸出入推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北韓과 주요 31個 西方國과의 品目別 輸入構造를 보면(表 5 참조), 1980년에는 非電氣機械, 輸送裝備, 電氣機械 등 機械 및 運輸裝備(SITC 7)가 38.1%로 가장 많으며 鐵鋼, 紙 및 紙製品, 纖維絲 및 織物, 金屬雜製品 등 原料別製品(SITC 6)이 25.0%, 그리고 殺蟲劑, 化學素材, 化學肥料 등 化學品(SITC 5)이 12.2%를 차지하여 이 세 가지 품목이 전체의 75.3%를 차지하고 있다.

29) 北韓의 對日債務로 인해 日本 債權者들은 輸出保險을 신청, 1986년 9월에 保險金을 수령했으나 이는 日本의 國內商社를 위한 구제조치로서 北韓의 債務支拂義務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佐藤勝巳(1987), p. 76 참조).

30) 이는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의 分析으로 1974~80년간의 北韓과 主要 31個 西方國과의 貿易統計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31個 貿易相對國은 벨기에, 덴마크, 西獨,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英國,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이집트, 핀란드, 그리스, 홍콩, 인도네시아, 日本,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유고슬라비아, 아이슬랜드,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등이다(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S., 1982).

北韓의 機械 및 運輸裝備(SITC 7)의 輸入은 주로 工作機械, 金屬加工機械, 트럭, 掘鑿機, 産業用 冷温裝置 등인데 1975~80년간에는 오히려 연평균 5.1%씩 감소하였다. 이것은 北韓이 서방측으로부터 1974~75년에는 플랜트 및 資本裝備를 대규모로 輸入하였으나 그 이후 누적되는 負債로 인해 輸入을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北韓이 工業化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점과 이 품목들의 국내생산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서방측으로부터 機械類 輸入의 증가는 계속 필요할 것이다.

原料別製品(SITC 6)의 輸入은 板紙, 鐵管, 纖維絲 및 織物, 金屬雜製品 등이 주요품목이다. 이 제품들의 輸入比重은 1974년 이후 감소하다가 1977년부터 다시 증가하였으나 1980년의 輸入額은 1974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北韓의 鐵鋼生産은 加工段階의 低位性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서방측으로부터의 特殊鋼輸入은 계속될 것 같다.

化學品(SITC 5)의 輸入은 殺蟲劑, 化學肥料, 플라스틱材料 등으로 1974년 이후 계속 輸入이 증가하여 1980년에는 總輸入額의 12.2%를 나타내고 있으며 플라스틱材料 및 化學素材는 당분간 계속 輸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輸入比重이 높은 個別品目を 보면 1980년에 非電氣機械(20.5%), 鐵鋼(9.2%), 輸送裝備(8.8%), 電氣機械(8.8%), 穀物(7.6%) 등으로 나타나 半製品 및 完製品을 수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輸入構造와 비교해 보면, 1981년 韓國 總輸入額 257億달러는 輸出用原資材 25%, 原油 25%, 資本財 17%, 原料 및 中間財 13% 등 주로 原油와 原資材 및 中間財가 輸入의 대종을 이루고 있어³¹⁾ 北韓의 輸入構造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食料品(SITC 0, 1, 4)은 1980년에 輸入比重이 8.8%로 穀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非食用原料(SITC 2)의 輸入은 주로 纖維原料, 생

〈表 5〉 北韓의 對西方 31個國 輸入의 品目別 構成, 1974~80

(단위: 百萬달러, %)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年平均增加率
對西方先進國 輸入	669.6	465.3	288.6	236.8	334.0	446.1	543.3(100.0)	-3.4
食料品(SITC 0, 1, 4)	148.6	10.9	34.1	33.4	25.4	39.6	47.7(8.8)	-17.3
原材料(SITC 2)	13.0	10.6	12.0	16.1	33.0	40.4	29.0(5.3)	14.3
鑛物燃料(SITC 3)	0.6	0.9	0.7	3.4	14.2	16.1	22.7(4.2)	83.2
化學品(SITC 5)	33.3	39.1	32.5	37.4	63.6	54.9	66.1(12.2)	12.1
原料別製品(SITC 6)	166.8	75.6	39.2	47.5	75.0	105.7	135.8(25.0)	-3.4
機械 및 運輸裝備(SITC 7)	284.1	304.1	153.6	83.1	86.6	150.6	207.0(38.1)	-5.1
雜製品(SITC 8)	19.3	14.5	11.7	13.8	12.9	19.2	23.2(4.3)	3.1
기 타	3.9	9.6	4.8	2.1	23.3	19.6	11.8(2.2)	20.3

註: ()안은 구성비임.

資料: U. N. 貿易統計의 磁氣테이프,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East-West Trade: The Prospects to 1985*, 1982, 8.

31) 韓國開發研究院(1983), p. 732 참조.

〈表 6〉 北韓의 對西方 31個國 輸出의 品目別 構成, 1974~80

(단위: 百萬달러, %)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年平均 增加率
對西方先進國 輸出	262.8	308.9	180.1	169.3	253.2	308.9	436.8(100.0)	8.8
食料品(SITC 0, 1, 4)	84.2	111.7	23.1	34.5	97.3	72.3	73.2(16.8)	-2.3
原材料(SITC 2)	47.4	42.8	42.3	41.9	50.6	68.3	77.8(17.8)	8.6
鑛物燃料(SITC 3)	8.8	1.2	2.2	1.9	1.4	3.2	9.9(2.3)	2.0
化學品(SITC 5)	3.3	3.5	3.5	4.2	5.5	3.3	5.7(1.3)	9.5
原料別製品(SITC 6)	113.3	145.7	102.9	78.7	86.8	149.1	262.7(60.1)	15.0
機械 및 運輸裝備(SITC 7)	1.1	1.6	1.2	3.5	7.2	4.9	2.5(0.6)	14.7
雜製品(SITC 8)	2.5	2.1	3.7	3.9	3.7	7.6	4.4(1.0)	9.9
기 타	2.2	0.3	1.2	0.7	0.7	0.2	0.6(0.1)	-19.5

註: ()안은 구성비임.

資料: 〈表 5〉와 同一.

고무 등으로 1978년에 9.9%까지 증가했다가 1980년에는 5.3%로 감소하였다.

北韓의 對西方輸出構造를 보면(表 6 참조), 1980년에 輸出比重이 높은 것은 原料別製品(SITC 6)으로 60.1%를 차지하며 이 중 약 80% 정도가 非鐵金屬이다. 다음으로는 非食用原料(SITC 2) 17.8%, 食料品類(SITC 0, 1, 4) 16.8%로 이 세 가지가 전체의 94.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輸出比重이 높은 個別品目으로는 1980년에 非鐵金屬(48.2%), 鐵鋼(9.6%), 穀物(7.1%), 魚類(6.9%), 天然肥料 및 鑛物(6.4%) 등으로 1次產品 및 半製品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輸入品目으로 機械類 및 完製品을 수입하는 양상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北韓의 對西方貿易 評價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北韓의 對西方貿易은 점점 더 침체에 빠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北韓의 많은 經濟的 問題點이 내재하

고 있다.

먼저 北韓 對西方輸出의 制約要因을 살펴보면 첫째, 輸出增加를 위해서는 生産力增大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北韓의 경우 輸出의 주종을 이루는 鑛業 및 鐵鋼業部門의 生産增大를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北韓의 自體生産이 불가능한 重機械 등의 대량구입이 요구되고 있으나 債務問題로 輸入이 어려운 형편이다. 둘째, 生産擴大 및 이를 위한 投資의 抑制要因으로 GNP의 20~25%를 차지하는 과도한 軍事費支出을 들 수 있다. 세번째 요인으로는 에너지문제를 들 수 있는데 北韓은 電力生産의 대부분을 水力 및 石炭을 이용한 火力發電에 의존하여(石油가 에너지공급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약 6%에 불과), 石炭生産의 隘路 및 가뭄 등 氣象條件의 악화는 電力供給에 차질을 가져와 工業生産力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자주 있다.

한편 北韓의 對西方輸入의 制約要因으로는 輸入에 필요한 外貨不足을 들 수 있다. 70년대 중반 이후의 債務問題로 인해 北韓의 對西

方輸入의 대부분은 現金決濟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는데, 北韓은 70년대 이후 지속적인 貿易赤字를 기록하고 있고 國際通貨基金(IMF)이나 世界銀行(IBRD)에도 가입되지 않은 관계로 國際金融機關의 支援을 받을 수 없다는³²⁾ 점이 北韓의 對西方輸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나아가 北韓의 經濟成長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로 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최근 北韓의 對西方貿易의 퇴조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으며 北韓이 目標로 하는 經濟成長의 달성을 위해서도 輸出入의 制約要因 除去는 시급하다고 하겠다.

北韓이 현재 「80년대 10大展望目標」의 수행을 포함하여 그들이 목표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플랜트와 裝備導入에 보다 많은 投資가 필요하다는 것은 1984년에 끝난 第2次7個年計劃(1978~84)이 실패하게 된 주요 원인의 하나가 生産施設 및 技術水準의 낙후에 있었다는 점에서도 자명하다고 하겠다. 또한 비록 北韓이 對西方側과 經常收支赤字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를 相殺하기 위한 더 많은 輸出을 위해서는 西方先進國의 機械 및 施設輸入이 지름길이라는 점에서 北韓은 앞으로도 西方側과의 貿易을 계속 추진하기를 원할 것으로 예견된다.

IV. 對外經濟協力 推移

80년대에 들어서 韓半島를 둘러싼 美·日·中·蘇 強大國들의 關係變化는 北韓 對外政策의 變化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北韓은 세계 각국이 이데올로기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對外政策을 택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취해 온 閉鎖經濟體制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 종전의 政經一致原則의 對外政策에서 탈피하여 對外經濟協力路線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더욱이 中共이 實用主義路線을 채택하여 美國, 日本 등 資本主義國家와의 協力關係를 강화하고 韓國과도 間接交易,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등 關係改善을 급속히 추진하는 데 자극을 받은 北韓은 韓·中共 關係改善에 대한 불만으로 對蘇偏向政策을 취하는 한편, 先進 資本主義國家에 대한 對外經濟協力的 擴大를 서두르고 있다. 또한 美國이 최근 南北對話 등 몇 가지 前提條件을 달아 北韓에 대해 藥品과 食糧을 중심으로 한 交易推進을 제의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의 緊張緩和라는 政治的 目的과 최근 北韓의 對蘇貿易依存度の 增加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이외에도 美·北韓間의 交易이 현실화될 때 韓·蘇 혹은 韓·中共間의 直接交易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本章에서는 최근 韓半島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변화 속에서 北韓이 취하고 있는 對外經濟協力的 政策과 그 展望을 살펴보기로 한다.

32) 北韓은 최근 들어 國聯開發計劃(UNDP)의 프로젝트援助를 받고 있지만 援助額이 적어 北韓의 國際收支問題의 해결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고 있지는 못하다. 北韓이 받은 UNDP 援助內容은 다음과 같다. 平壤~新城川間 鐵道の C.T.C. (중앙제어장치)化 (약 300萬달러), 南浦港改修計劃 (약 200萬달러), ICI工場建設(약 560萬달러) 등이다[日本貿易振興會(1983b), p. 55 참조].

1. 對蘇偏重 및 對中共政策

1984년 5월 金日成의 모스크바訪問을 계기로 蘇聯과 北韓의 關係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1984년 蘇聯外相의 平壤訪問, 「미그」23機の 北韓提供과 그에 대한 댓가로 南浦港 및 北韓領空의 開放, 1985년 北韓의 解放 40周年紀念日에 蘇聯副首相 및 太平洋艦隊의 北韓訪問과 北韓이 ‘解放者’로서 蘇聯을 평가한 사실³³⁾, 그리고 1986년의 長期 雙務貿易協定締結과³⁴⁾ 1986년 10월 金日成의 蘇聯訪問 등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蘇聯과 北韓의 接近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강화하고 金日成世襲體制를 인정받으려는 北韓의 의도와 그동안 소홀히 해 온 극동에서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蘇聯의 계산이 일치된 것으로³⁵⁾, 北韓은 中共의 對韓國 關係

改善을 견제하고 蘇聯은 北韓의 對中共 偏重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北韓의 입장에서 中共과 蘇聯의 經濟水準을 고려해 보면 中共이 經濟開放政策을 통해 근대화를 추진하더라도 北韓이 필요로 하는 資本 및 技術을 제공할 수 있는 쪽은 中共이 아니라 蘇聯 및 東歐共產國家들로서, 北韓이 「80년대 10大展望目標」를 중심으로 한 第3次7個年計劃 目標達成을 위해서는 對蘇紐帶強化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으며, 中共式的 開放政策을 도입하는 경우 體制崩壞의 危險性을 배제할 수 없다는 체제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蘇聯의 경우는 최근 들어 韓·美·日의 軍事關係 및 美·日과 中共의 軍事協力關係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北韓이 蘇聯을 제치고 中共을 중개자로 한 3者會談을 제외한 사실 등 일련의 사태를 통해 對北韓 關係改善의 必要性이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中共과 北韓의 關係를 악화시킬 정도로 北韓의 對蘇偏重이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北韓의 對蘇關係는 보다 긴밀해지고, 따라서 蘇聯의 對北韓 經濟援助는 증대하리라 예상된다. 蘇聯은 1986~90년 사이에 平壤火力發電所의 建設과 安州炭鑛의 擴大 및 施設改善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19개부문에 걸친 經濟技術協力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蘇聯의 經濟援助에는 그에 상응하는 부담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蘇聯이 현재 힘을 기울이고 있는 ‘社會主義共同體의 經濟統合新段階로의 接近政策’이라는 蘇聯 中心의 「코메콘」(COMECON)體制強化政策에의 參與要求에 대해 北韓이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인가가 주목된다³⁶⁾.

한편 北韓의 對中共 經濟協力關係는 中共의

33) 姜成山 首相은 解放 40周年紀念行事에 참가한 蘇聯代表團을 맞는 자리에서 “우리 人民은 解放者, 援助者로서 蘇聯이 한 역할을 잊을 수가 없다.” 고 발언, 蘇聯의 役割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던 중전의 입장과 비교할 때 蘇聯에 접근하려는 北韓의 의도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日本朝鮮研究所(1985. No.255), pp.8~9 및 EIU(1985. 3), p.31 참조).

34) 北韓과 蘇聯은 1986~90년 기간동안 쌍방의 貿易量을 1981~85년 수준의 2배로 증가시킬 것을 협정하였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蘇聯은 北韓의 對蘇聯 債務償還의 遲延을 방지하기 위하여 蘇聯의 經濟技術協力에 의하여 北韓에 건설된 工場들로부터 5년 동안에 걸쳐 연간 배터리 100萬개, 소형전기모터 100萬개, 불베어링 1,000萬개 및 알루미늄 2萬톤을 蘇聯에 輸出하도록 하여 債務를 生産品으로 辨濟하는 制度를 동시에 締結하고 있다(EIU(1987. 2), p.33 참조).

35) 蘇聯의 極東아시아政策 3大戰略目標은 1) 東北아시아에 있어서 美國 軍事力の 牽制 및 除去 2) 中共의 威脅牽制 3) 日本의 威脅抑制이다(Zagoria(1982), pp.258~266 참조).

36) 日本貿易振興會(1987), pp.11~14 참조.

北韓에 대한 軍事援助, 經濟支援, 雙務의바터 交易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軍事援助 側面을 보면 지금까지 中共의 對北韓 軍事援助規模는 베트남 다음으로 13~15億달러 정도로 알려졌다. 그러나 美·中共 關係正常化가 이루어지던 1970~71년간 정점에 달했던 中共의 對北韓 軍事援助는 1978년부터 급격히 감소추세를 보였고 1982년 이후에는 無償軍事援助가 완전히 끊긴 상태이다³⁷⁾.

한편, 中共은 第11期 黨中央委 3次全體會議 (1978.12)에서 文化大革命의 弊害를 시인하고 實用主義路線을 채택, 理念보다 實利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對外政策을 전환하고 있다. 對韓半島政策에 있어서도 北韓과의 關係가 악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韓國과의 關係改善을 통해 實利를 획득함과 동시에, 北韓에 대해서는 實用主義로의 轉換을 권고하고 있다.

韓國과 中共과의 關係는 美國과 日本에 의해 신중히 접근이 중재되어 왔다³⁸⁾. 1981년부터 韓·中共間의 間接交易이 시작되고, 1983년 5월 中共民航機 被拉事件으로 직접 교섭이 이루어진 이래 中共의 서울 아시아競技大會 參加(1986), 中共僑胞의 母國訪問 등 관계개선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 韓·中共間의 直接交易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다. 中共의 韓國 技術에 대한 관심과 값싸고 풍부한 원료와 방대한 잠재적 시장을 갖고 있는 中共에 대한 韓國側의 관심에서 출발한 韓國과 中共間의 交易은 현재 홍콩, 日

本, 싱가포르를 통한 間接交易이 대부분이나 石炭, 옥수수, 原油 등 特定物品은 直接交易에 가까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³⁹⁾.

南·北韓 對中共貿易現況은 <表 7>과 같다. 먼저 최근 北韓과 中共의 貿易關係를 보면 1986년 9월 향후 5년간(1987~91)의 雙務貿易協定の 再契約이 이루어졌으나, 1979년 北韓의 對中共 輸出 3.3億달러, 輸入 3.2億달러에 비하여 1986년 北韓의 對中共貿易은 輸出 2.8億달러, 輸入 2.5億달러로 交易量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반면 韓·中共間 貿易은 1982년초 北韓의 抗議로 잠시 중단된 적도 있지만 그 후 계속 증가하여 1986년에 약 8億달러로 北韓과 中共間의 貿易額 5.2億달러를 훨씬 상회하였고, 1987년에는 10億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⁴⁰⁾.

이와 같은 韓·中共間 關係改善이 앞에서 본바와 같이 北韓의 蘇聯接近을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北韓의 움직임에 대해 中共은 커다란 우려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中共은 첫째, 北韓이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또는 생활습관에서나 관념상으로 蘇聯보다는 中共에 더 가까와질 수밖에 없다는 것, 둘째, 北韓이 蘇聯에 대해 접근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蘇聯으로부터 얻는 도움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점, 셋째, 北韓의 입장에서조차 中共 혹은 蘇聯의 어느 한쪽에만 접근함으로써 다른 한쪽으로부터 배척받는 행동은 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⁴¹⁾. 新華社通信에 따르면 1985년 1월 17일 北韓에서 中共과 北韓間의 經濟援助協定이 체결되었고, 상세한 것은 보도되지 않았으나, 中共은 北韓에 종전과 같이 原油를 공급하고 輕工業施設을 제공하기

37) 吳鎮龍(1987) 참조.

38) 金一平(1984), pp. 14~24 참조.

39) 金容在(1985), pp. 65~71 참조.

40) 日本貿易振興會(1987), pp. 9~11 참조.

41) 구체적인 내용은 韓國日報(1985. 9. 10) 참조.

〈表 7〉 南·北韓 對中共交易現況

(단위 : 百萬달러)

	韓國(홍콩 경유)			北 韓 ¹⁾		
	輸出	輸入	計	輸出	輸入	計
1981	n. a.	n. a.	n. a.	231	300	531
1982	210	280	490	304	281	585
1983	150	289	439	254	273	527
1984	259	339	598	272	226	498
1985	174	308	482	245	239	484
1986	n. a.	n. a.	800	275	248	515

註 : 1) 北韓의 貿易統計値는 貿易相對國에서 발표한 統計資料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한 北韓과 中共間의 交易은 社會主義國家間의 交易이므로, 北韓의 對中共輸出=中共의 對北韓輸入, 北韓의 對中共輸入=中共의 對北韓輸出이라는 방법으로 도출한 數值임.

資料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86.

日本貿易振興會, 『北朝鮮의 經濟와 貿易의 展望』, 1987. 6.

로 하였다고 알려졌다⁴²⁾. 현재 中共의 韓半島에 대한 입장은 韓半島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美·中關係는 다시 악화되고 中共의 開放政策 및 近代化政策도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中共은 美國과 협조하여 한반도의 緊張緩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中共의 現經濟發展方向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對北韓 經濟協力關係의 弱화를 가져오리라고 예상된다. 첫째, 中共의 經濟運營이 投資財源, 原資材, 에너지 등을 가급적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北韓과의 政治的 紐帶關係를 위해 과거와 같이 많은 원조를 할 수 없으며, 둘째, 超過需要壓力에 부딪친 中共經濟는 政治적 목적의 경제협력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고, 對美·蘇 等距離外交를 통해 이미 국방예산감소에 성공한 中共은 무리한 경제지원 없이도 변방에 대한 戰爭抑制力을 강화했으며, 세째, 경제적 차원에서 이미 體制的 敵이 없는 상황을 맞이한 中共이

特定國家에 대한 원조란 부담을 질 때는 특수성과 함께 엄격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2. 其他國과의 經濟關係

日本은 北韓의 對西方交易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고, 70년대 중반 이후 北韓의 外債支拂延期事態 이후에도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日本·北韓間 交易의 상당부분이 朝總聯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交易相對國으로 남아 있다. 최근 日本과 北韓의 交易은 〈表 4〉에서 볼 수 있듯이 1980년 5.8億달러에 달해 정점을 이루었고 그 후에도 연평균 4億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北韓의 合營法을 통한 對外開放政策과 北韓·中共間의 關係惡化는 日本의 北韓接近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日本은 北韓과의 「民間漁業協定」再締結(1984. 10), 對北韓制裁措置의 解除(1985. 1), 日本社會黨人士의 北韓訪問(1984. 11) 및 日本社會黨의

42) EIU(1985. 2), p. 39 참조.

勞動新聞 代表團 초청, 日·北韓間 經濟交流擴大를 위한 南海電鐵會長의 北韓訪問(1985)⁴³⁾, 日朝貿易會 會長의 平壤訪問(1986) 등 對北韓 接近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의 對北韓 關係에는 北韓이 1976년 이후 總 851億엔에 달하는 對日負債를 아직 상환하지 못한 점, 北韓과 日本間에 국교가 없는 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 日本이 北韓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할 때 반드시 韓國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문제가 가로놓여 있으므로 日本과 北韓과의 관계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北韓의 第3世界와의 관계 강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北韓은 70년대 중반 이후 외채문제로 對西方交易이 벽에 부딪치게 되자, 1978년 이후 第3世界로 交易 및 經濟協力路線을 전환, 南南經濟協力에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이는 韓國을 의식하여 세계 100여개국과의 외교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⁴⁴⁾ 정치적인 목적과 對西方 經濟協力路線이 차단된 상태에서 北韓이 閉鎖經濟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第3世界와의 關係改善을 통한 對外經濟協力路線의 多元化가 필요하다는 경제적 목적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다. 北韓은 石油輸入의 댓가로 사우디 아라비아에 시멘트를 수출하고 이란에 대해 1982년 이후 연

간 4億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출하고⁴⁵⁾ 있으며, 印度에 대해서는 기술협조의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北韓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주로 아프리카지역을 대상으로 農業技術支援 등 여러 가지 원조를 하고 있다.

V. 結 論

北韓이 第3次7個年計劃(1987~93)의 對外經濟協力部門에서 資本主義國家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과 무역거래를 활발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음은 지금까지 극히 폐쇄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北韓으로서는 상당한 자세전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의 이와 같이 자세변화는 基調的으로 中共과 같이 實用主義로의 修正이나 開放化가 결코 아니고 硬直된 北韓社會의 構造的 沈滯를 타개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여 第3次7個年計劃目標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北韓의 對外合作投資誘致를 어렵게 하는 要因으로서 北韓經濟體制 및 그의 運用上的 문제점들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中央集權的 計劃經濟의 보편적 현상들인 關료적인 타성, 부문간의 불균형, 생산품의 품질저하 등이지만, 이 외에도 北韓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정치목적에 대한 經濟의 隸屬化, 지나친 自立·對內指向的 經濟政策 등을 들 수 있다. 즉 北韓經濟의 지나친 중앙집권화와 엄격한 정치적 통제는 北韓產業의 國際競爭力을 상실케 했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이 없으면 非效率과 硬直性을 야기시켜 北韓經濟體制的 危機를 더욱

43) 여기서는 北韓과 日本의 技術協力 및 北韓의 合營法發表에 따른 日本企業과의 合作投資에 대한 논의하였다[자세한 내용은 每日經濟新聞(1985. 9. 18) 및 東亞日報(1985. 9. 26) 참조].

44) 1984년말 현재 修交現況은 韓國 119개국, 北韓 105개국이다. 여기서는 領事關係만 맺고 있는 경우는 제외시켰다[日朝貿易會(1985, No. 303), pp. 9~12].

45) EIU(1985), pp. 59~61 참조.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그동안 경제적 성과에 기여해 온 大衆組織의 役割, 즉 이데올로기 및 大衆動員手段에는 전적인 의존은 이미 그 효과면에서 限界收益遞減의 段階에 도달하였다. 즉 이러한 수단들은 外向的인 初期成長段階에 있는 後發開途國의 경우에는 적절한 전략일지 모르나 앞으로 內的인 成長段階를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능률증대와 기술진보 등에 역행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北韓의 貿易政策은 그 자체가 國際收支 均衡을 전제로 하는 縮小均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면서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韓國의 開放體制와는 貿易政策上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北韓經濟는 그동안 경제발전예에 대해 경직적인 貿易體制를 택하여 왔으나 70년대부터는 불가피하게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開放體制로 부분적인 전환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國際收支의 不均衡, 對外支拂能力의 惡化 등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면서 커다란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對西方 債務問題로 北韓經濟는 70년대 중반 이후 自給自足 中央集權的 經濟體制에 다시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⁴⁶⁾, 이로 인해 第2次7個年計劃(1978~84)에도 실패한 北韓은

1984년 9월 合營法을 공포하는 등 對外開放化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北韓이 合營法을 제정하고 西方諸國과의 合作교섭을 끈질기게 전개하려고 하는 배경으로는 北韓 對內經濟의 限界性, 共產圈經濟에 대한 期待難 등을 들 수 있는데, 對內經濟의 限界性은 경제운용체제의 모순, 경제개발전략 및 정책의 불합리성, 생산기반의 낙후성 등으로 집약할 수 있고 共產圈經濟에 대한 期待難은 中共 등 共產圈經濟體制의 變化, 西方經濟에 대한 共產圈經濟의 상대적 열세 등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合營法 制定의 배경은 工業設備의 老朽化로 인한 低生産性, 經濟的 落後性에 의한 對南優位喪失과 그동안 누적된 外債事情 惡化 등을 극복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北韓의 合營法은 北韓市場의 불확실성과 70년대의 외채상환 불이행 등으로 인한 서방세계의 계속적인 불신감으로 西方諸國은 北韓과의 合作을 기피하고 있다. 또한 北韓의 經濟特別區域의 設置 및 投資에 대한 안정성 보장의 미비로 北韓의 計劃經濟體制와 西方經濟가 아직 원만히 접목될 수 없는 여건이므로 西方先進國은 北韓의 合營法에 대하여 적극적일 수 없다고 하겠다.

北韓經濟에서 貿易의 役割은 內部經濟成長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北韓 貿易構造의 分析을 통해 北韓經濟 全體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北韓의 經濟現實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北韓貿易의 일반적인 제약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輸出의 경우 한 나라의 輸出은 그 나라 경제의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생산시설 및 기술수준이 낙후된 北韓의 경우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는 輸入設備投資가

46) 여기서 유의할 점은 北韓은 「主體」思想에 의한 自立經濟建設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北韓 經濟建設에 있어서 外援의 依存度는 크다. 모스크바放送은 1986년 10월 中共首相의 北韓訪問時期와 때를 같이하여 北韓에 대한 蘇聯의 工場設備支援의 예로서 北韓 總鐵鋼生産의 28%, 酸化鐵生産의 29% 및 각종 石油製品生産의 50% 및 總電力生産의 66%를 蘇聯이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北韓當局의 언급은 없다(EIU(1986, 4), p.33 참조).

증가되어야 한다는 점과 투자를 제약하는 GNP의 20~25%를 차지하는 과도한 軍事費支出, 에너지供給의 隘路 등이 생산력 증대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또한 輸入의 制約要因으로는 輸入에 필요한 외화부족과 北韓의 전반적 기술수준의 낙후 및 사회간접자본 부족으로 인한 경제의 吸收能力(absorptive capacity)이 미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제약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따르지 않는 한 北韓의 貿易增大, 나아가 北韓의 經濟成長은 그들이 원하는 목표와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이다.

北韓의 對西方圈 輸出入에서 나타난 특징을 보면 첫째, 北韓의 貿易基調는 短期的 輸出入 均衡政策에 기반을 두고 있어 1978년 이후에는 貿易黑字를 나타낸 적도 있지만, 對西方側과의 貿易去來는 지속적인 貿易赤字를 나타냈고, 특히 80년대에 들어와서는 貿易赤字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北韓의 輸入構造는 機械類 및 運輸裝備(SITC 7)와 原料別製品(SITC 6), 그리고 化學品(SITC 5)의 輸入이 1980년에 전체의 75.3%를 차지하여 주로 完製品 및 半製品의 輸入形態를 나타내고 있고, 輸出構造는 非鐵金屬 등 原料別製

品(SITC 6), 食料品類(SITC 0,1,4) 및 鑛產品類 등 非食用原料(SITC 2)가 全體輸出의 94.7%를 차지하여 1次產品과 半製品이 주종을 이루는 輸出形態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셋째, 北韓은 현재 추진중인 第3次7個年計劃의 수행 및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을 위해, 그리고 1984년에 끝난 第2次7個年計劃이 실패한 주요 원인의 하나가 생산시설 및 기술수준의 낙후였다는 점에서도 西方側으로부터의 技術 및 資本設備의 輸入이 필요하고 여겨지는데 債務問題로 인한 신용실추가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최근 北韓의 經濟活性化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의 하나인 北韓의 對外開放化政策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아직까지는 對內·外的 與件上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형식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對外經濟協力の 必要性和 아울러 外債問題解決을 위해 合營法制定 및 貿易擴大政策을 실시한 것은 그동안 「自力更生原則」과 「人民經濟의 主體化」를 표방해 온 北韓으로서는 하나의 큰 변화로서 조만간 있을지도 모를 金日成-金正日間의 權力世襲에 따른 北韓政治體制의 變化方向과 연관시켜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金永圭, 「北韓의 對西方經濟接近 動向分析」, 『統一論叢』, 第5卷 第1號, 國土統一院, 1985, pp. 165~189.
 金容在, 「韓·中共의 交流現況」, 『統一問題』, 第17輯, 國土統一院, 1985. 2, pp. 65~71.

金一平, 「中國의 韓半島政策」, 『코리아評論』, No.270, 民族問題研究所, 1984. 11, pp. 14~24.
 民族問題研究所, 『코리아評論』, No.270, 1984. 11.
 小村武樹, 「北朝鮮의 第三次七か年計劃가 目指

- すもの」, 『コリア評論』, No. 301, 民族問題研究所, 1987. 7, pp. 18~29.
- 吳鎮龍, 「中共의 對北韓經濟協力」, 學術會議資料, 日海研究所, 1987. 8.
- 日本貿易振興會,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1982, 1983a, 1987.
-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1983b.
- 日本朝鮮研究所, 「手きびしいソ連の態度」, 『現代コリア』, No. 255, 1985. 10.
- 日朝貿易會, 『日朝貿易』, 1984(No.297), 1985(No.303), 1986(No.328).
- 佐藤勝巳, 「展望이 흐린 朝・日貿易」, 『共產圏研究』, 1987. 7, pp.76~80.
- 河合弘子, 「合營法の背景と問題點」, 『現代コリア』, No.247, 日本朝鮮研究所, 1985. 1, pp. 20~21.
- 韓國開發研究院, 『經濟運用問題에 관한 短期政策研究』, 1983.
-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S., *East-West Trade : The Prospects to 1985*, 1982, pp. 182~202.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EIU, *Country Profile, China, North Korea, 1986~1987*, 1986.
- , *Country Report, China, North Korea*, 1986. 4, 1987. 2.
- , *Quarterly Economic Review, China, North Korea*, 1984. 4, 1985. 2, 1985. 3, 1985. 4, 1986. 1.
- , *Quarterly Economic Review, China, North Korea, Annual Supplement*, 1985.
- Wilczynsky, J., *The Economics of Socialism*, London, 1970.
- Zagoria, Donald S., *Soviet Policy in East Asia*,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82.

〈附表 1〉 北韓의 區域別 貿易推移, 1971~1985

年次	對 共 產 國						對 西 方 國						總 貿 易 額							
	輸 出		輸 入		貿 易 收 支		計		輸 入		貿 易 收 支		計		輸 入		貿 易 收 支		合 計	
	金額	構成比 ¹⁾	金額	構成比 ²⁾	金額	構成比 ³⁾	金額	構成比 ³⁾	金額	構成比 ²⁾	金額	構成比 ²⁾	金額	構成比 ²⁾	金額	構成比 ²⁾	金額	構成比 ²⁾	金額	構成比 ²⁾
1971	245.2	(78.3)	493.1	(88.4)	-247.9	(84.8)	738.3	(84.8)	67.9	(21.7)	64.5	(11.6)	3.4	(15.2)	132.4	(15.2)	557.6	-244.5	870.7	
1974	424.6	(61.4)	574.6	(42.3)	-150.0	(48.8)	999.2	(48.8)	267.2	(38.6)	782.6	(57.7)	-515.4	(51.2)	1,049.8	(51.2)	1,357.2	-665.4	2,049.0	
1975	482.5	(59.9)	634.9	(55.0)	-152.4	(57.0)	1,117.4	(57.0)	323.4	(40.1)	520.4	(45.0)	-197.0	(43.0)	843.8	(43.0)	1,155.3	-349.4	1,961.2	
1980	865.6	(52.7)	939.3	(54.9)	-73.7	(53.8)	1,804.9	(53.8)	775.9	(47.3)	771.0	(45.1)	4.9	(46.2)	1,546.9	(46.2)	1,710.3	-68.8	3,351.8	
1981	661.1	(61.1)	768.9	(54.4)	-108.8	(57.3)	1,429.0	(57.3)	419.9	(38.9)	644.8	(45.6)	-244.9	(42.7)	1,064.7	(42.7)	1,080.0	-333.7	2,493.7	
1982	873.3	(67.8)	778.1	(54.2)	95.2	(60.6)	1,651.4	(60.6)	415.5	(32.2)	657.5	(45.8)	-242.0	(39.4)	1,073.0	(39.4)	1,288.8	-146.8	2,724.4	
1983	756.7	(60.8)	684.6	(41.2)	72.1	(49.6)	1,441.3	(49.6)	488.4	(39.2)	975.5	(58.8)	-487.1	(50.4)	1,463.9	(50.4)	1,660.1	-415.0	2,905.2	
1984	766.0	(59.7)	696.2	(45.2)	69.8	(51.8)	1,462.2	(51.8)	518.1	(40.3)	843.3	(54.8)	-325.2	(48.2)	1,361.4	(48.2)	1,284.1	-255.4	2,823.6	
1985	823.9	(64.8)	1,109.5	(58.4)	-276.6	(61.0)	1,942.4	(61.0)	452.3	(35.2)	790.4	(41.6)	-338.1	(39.0)	1,242.7	(39.0)	1,899.9	-614.7	3,185.1	

註: 1) 總輸出額에 대한 비율임.

2) 總輸入額에 대한 비율임.

3) 總貿易額에 대한 비율임.

資料: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70~1986*.

United Nations Nations Unies,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New York, 1980. 7, 1982. 8, 1985. 7.*

日本貿易振興會,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1981, 1987.

〈附表 2〉 北韓의 資料源別 貿易規模比較, 1970~1985

年次	國土統一院 ¹⁾						Rand Corporation ²⁾						C. I. A. ³⁾						E. I. U. ⁴⁾						美國國會 ⁵⁾						本研究所推計	
	輸出		輸入		貿易收支		輸出		輸入		貿易收支		輸出		輸入		貿易收支		輸出		輸入		貿易收支		輸出		輸入		貿易收支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1970	366.0	439.0	-73.0	299.6	381.5	-81.9	324	403	-79	683.9	1,312.1	-628.2	727	341.0	377.5	-36.5	341.0	377.5	-36.5	341.0	377.5	-36.5	341.0	377.5	-36.5	341.0	377.5	-36.5	341.0	377.5	-36.5	
1974	677.2	1,303.1	-625.9	679.8	1,228.2	-548.4	708	1,295	-587	806.8	1,082.2	-275.4	851	691.8	1,357.2	-665.4	691.8	1,357.2	-665.4	691.8	1,357.2	-665.4	691.8	1,357.2	-665.4	691.8	1,357.2	-665.4	691.8	1,357.2	-665.4	
1975	819.0	1,092.7	-273.7	771.6	1,071.6	-300.0	827	1,110	-283	806.8	1,082.2	-275.4	851	805.9	1,155.3	-349.4	805.9	1,155.3	-349.4	805.9	1,155.3	-349.4	805.9	1,155.3	-349.4	805.9	1,155.3	-349.4	805.9	1,155.3	-349.4	
1979	1,150.0	1,160.0	-10.0	1,611.5	1,413.7	197.8	1,430	1,489	-59	1,552.9	1,336.9	216.0	1,320	1,489.0	1,379.9	109.1	1,489.0	1,379.9	109.1	1,489.0	1,379.9	109.1	1,489.0	1,379.9	109.1	1,489.0	1,379.9	109.1	1,489.0	1,379.9	109.1	
1980	1,441.0	1,739.0	-298.0	1,995	1,915	80	1,641.5	1,710.3	-68.8	1,641.5	1,710.3	-68.8	1,641.5	1,710.3	-68.8	1,641.5	1,710.3	-68.8	1,641.5	1,710.3	-68.8	1,641.5	1,710.3	-68.8	
1985	1,285.2	1,899.9	-614.7	1,285.2	1,899.9	-614.7	1,285.2	1,899.9	-614.7	1,285.2	1,899.9	-614.7	1,285.2	1,899.9	-614.7	1,285.2	1,899.9	-614.7	

註: 1) 國土統一院, 『南·北韓總力趨勢比較』, 1982, pp.100 ~102.

2) 美國 The Rand Corporation 內部資料.

3) USCIA, National Foreign Assessment Center,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1982*.

4)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Quarterly Economic Review of China, North Korea, Annual Supplement, 1982, p. 34*.

5)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S., *East-West Trade: The Prospects to 1985, 1982, p.183*.

〈附表 3〉 北韓의 對西方圈 輸出推移, 1970~1985

	1970	1975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日本	31.3(28.8)	58.9(18.2)	163.7(21.1)	126.8(30.2)	138.2(33.3)	114.7(23.5)	132.0(25.5)	163.8(36.2)
西獨	11.5(10.6)	47.0(14.5)	172.0(22.2)	50.4(12.0)	137.4(33.1)	130.7(26.8)	135.0(26.1)	56.2(12.4)
프랑스	10.3(9.5)	38.2(11.8)	17.4(2.2)	4.6(1.1)	2.8(0.7)	3.5(0.7)	3.4(0.7)	3.9(0.9)
캐나다	-	0.5(0.2)	0.4(0.0)	0.1(0.0)	-	0.1(0.0)	0.3(0.1)	0.4(0.1)
오스트리아	0.3(0.3)	0.9(0.3)	0.5(0.1)	0.2(0.0)	0.4(0.1)	0.3(0.1)	3.2(0.6)	0.2(0.0)
벨기에	1.6(1.5)	1.3(0.4)	0.2(0.0)	-	0.2(0.0)	0.1(0.0)	0.2(0.0)	-
이탈리아	0.3(0.3)	2.2(0.7)	13.7(1.8)	3.0(0.7)	1.3(0.3)	2.2(0.5)	1.5(0.3)	1.0(0.2)
네덜란드	1.0(0.9)	4.3(1.3)	0.2(0.0)	0.2(0.0)	0.1(0.0)	0.2(0.0)	0.2(0.0)	0.3(0.1)
스페인	-	1.0(0.3)	1.3(0.2)	1.1(0.3)	1.1(0.3)	1.1(0.2)	1.8(0.3)	2.2(0.5)
스웨덴	-	0.5(0.2)	1.3(0.2)	0.6(0.1)	0.5(0.1)	0.4(0.1)	0.4(0.1)	0.5(0.1)
스위스	0.5(0.4)	0.4(0.1)	44.8(5.8)	0.3(0.1)	-	-	0.1(0.0)	0.2(0.0)
英國	1.3(1.2)	2.9(0.9)	0.8(0.1)	1.2(0.3)	0.4(0.1)	0.5(0.1)	0.8(0.2)	2.6(0.6)
기타 OECD國	40.2(37.0)	3.1(0.9)	9.9(1.2)	1.1(0.3)	1.9(0.4)	1.9(0.4)	4.5(0.8)	0.8(0.2)
OECD國 合計	98.3(90.5)	161.2(49.8)	426.2(54.9)	189.6(45.2)	284.3(68.4)	255.7(52.4)	283.4(54.7)	232.5(51.4)
방글라데시	-	0.2(0.1)	7.3(1.0)	4.6(1.1)	3.3(0.8)	5.0(1.0)	10.6(2.0)	18.5(4.1)
홍콩	3.6(3.3)	6.3(1.9)	26.4(3.4)	12.8(3.0)	13.4(3.0)	11.4(2.3)	21.2(4.1)	18.3(4.0)
싱가포르	3.2(3.0)	10.5(3.3)	8.5(1.1)	4.7(1.1)	9.5(2.3)	4.3(0.9)	4.5(0.9)	6.1(1.3)
印度	-	4.8(1.5)	49.8(6.4)	22.9(5.5)	20.6(5.0) ¹⁾	22.6(4.6) ¹⁾	23.8(4.6) ¹⁾	22.6(5.0) ¹⁾
인도네시아	-	91.4(28.3)	36.2(4.7)	12.6(3.0)	8.4(2.0)	6.7(1.4)	11.0(2.1)	4.2(0.9) ²⁾
말레이시아	-	1.9(0.6)	2.2(0.3)	6.7(1.6)	1.2(0.3)	1.3(0.3)	0.8(0.2)	0.4(0.1)
쿠웨이트	-	-	-	-	-	107.9(22.1)	97.1(18.7) ¹⁾	77.7(17.2) ¹⁾
사우디 아라비아	1.1(1.0)	8.1(2.5)	183.3(23.6)	116.4(27.7)	21.0(5.1)	2.8(0.6)	7.3(1.4)	5.8(1.3) ¹⁾
이집트	1.2(1.1)	24.7(7.6)	1.3(0.2)	3.8(0.9)	2.7(0.6)	5.1(1.0)	0.1(0.0)	0.1(0.0) ¹⁾
기타開途國	1.2(1.1)	14.3(4.4)	34.7(4.5)	45.8(10.9)	51.1(12.3)	65.6(13.4)	58.3(11.3)	66.3(14.7)
開途國 計	10.3(9.5)	162.2(50.2)	349.7(45.1)	230.3(54.8)	131.2(31.6)	232.7(47.6)	234.7(45.3)	220.0(48.6)
對西方圈 合計	108.6(100.0)	323.4(100.0)	775.9(100.0)	419.9(100.0)	415.5(100.0)	488.4(100.0)	518.1(100.0)	452.5(100.0)

註: 1) 北韓의 貿易相對國도 해당연도의 統計値를 발표하지 않아 그 이전의 3년간 統計를 기준으로 IMF에서 추정 한 것임.

2) 5개월 이하만 統計値가 이용가능하고 나머지 경우는 IMF에서 추정 한 경우임.

資料: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77, 1979, 1986.

日本貿易振興會, 『北朝鮮의 經濟と 貿易의 展望』, 1987.

〈附表 4〉 北韓의 對西方圈 輸入推移, 1970~1985

	1970	1975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日本	25.7(42.4)	199.8(38.4)	411.7(53.4)	320.1(49.6)	344.5(52.4)	359.8(36.9)	280.2(33.2)	271.8(34.4)
西獨	8.1(13.4)	83.3(16.0)	36.6(4.7)	33.0(5.1)	36.8(5.6)	25.0(2.6)	24.9(3.0)	27.0(3.4)
프랑스	5.0(8.2)	24.6(4.7)	5.3(0.7)	75.8(11.8)	49.0(7.5)	50.7(5.2)	14.8(1.7)	8.6(1.1)
캐나다	-	5.3(1.0)	-	-	0.1(0.0)	1.1(0.1)	2.2(0.3)	1.0(0.1)
오스트리아	4.3(7.1)	26.5(5.1)	5.4(0.7)	19.0(2.9)	6.6(1.0)	6.0(0.6)	6.4(0.8)	9.5(1.2)
벨기에	0.1(0.2)	6.9(1.3)	2.4(0.3)	5.3(0.8)	2.4(0.4)	2.5(0.3)	2.0(0.2)	1.1(0.1)
이탈리아	1.7(2.8)	13.2(2.5)	11.4(1.5)	12.1(1.9)	16.4(2.5)	12.2(1.3)	10.0(1.2)	14.4(1.8)
네덜란드	0.1(0.2)	1.5(0.3)	5.3(0.7)	0.4(0.1)	0.9(0.1)	2.4(0.2)	3.0(0.3)	0.7(0.1)
스페인	-	0.4(0.1)	3.9(0.5)	0.8(0.1)	4.9(0.8)	0.1(0.0)	0.3(0.0)	2.7(0.3)
스웨덴	0.1(0.2)	73.3(14.1)	8.5(1.1)	6.9(1.1)	6.0(0.9)	19.5(2.0)	3.5(0.4)	1.3(0.2)
스위스	0.2(0.3)	11.1(2.1)	9.9(1.3)	7.7(1.2)	16.9(2.6)	8.7(0.9)	8.1(1.0)	3.1(0.4)
英國	0.4(0.7)	1.7(0.3)	2.5(0.3)	1.4(0.2)	7.5(1.1)	4.2(0.4)	4.4(0.5)	3.6(0.5)
기타 OECD國	6.1(10.1)	27.0(5.2)	46.4(6.0)	10.2(1.6)	13.3(2.0)	15.3(1.6)	26.0(3.1)	27.9(3.5)
OECD國 合計	51.8(85.5)	474.6(91.2)	549.3(71.2)	492.7(76.4)	505.3(76.9)	507.5(52.0)	385.8(45.7)	372.7(47.2)
방글라데시	-	-	3.2(0.4)	1.5(0.2)	1.8(0.3)	0.3(0.0)	0.2(0.0)	5.1(0.6)
홍콩	0.3(0.5)	1.9(0.4)	66.9(8.7)	49.1(7.6)	50.6(7.7)	35.8(3.7)	52.5(6.2)	55.6(7.0)
싱가포르	4.3(7.1)	8.8(1.7)	36.8(4.8)	39.1(6.1)	31.3(4.8)	16.8(1.7)	26.0(3.1)	24.9(3.2)
印度	0.8(1.3)	8.6(1.6)	39.7(5.1)	4.4(0.7)	4.0(0.6) ¹⁾	4.4(0.5) ¹⁾	4.6(0.5) ¹⁾	4.4(0.6) ¹⁾
인도네시아	-	-	1.5(0.2)	-	1.0(0.1)	4.4(0.5)	17.8(2.1)	10.7(1.4) ²⁾
말레이시아	-	-	21.7(2.8)	2.7(0.4)	13.0(2.0)	19.0(1.9)	13.0(1.5)	1.4(0.2)
쿠웨이트	-	-	-	-	-	347.3(35.6)	312.5(37.1)	281.3(35.6) ¹⁾
사우디 아라비아	-	-	0.2(0.0)	0.7(0.1)	0.1(0.0)	0.1(0.0) ¹⁾	0.1(0.0) ¹⁾	0.1(0.0) ¹⁾
이집트	1.6(2.6)	8.9(1.7)	12.1(1.6)	18.1(2.8)	15.4(2.3)	10.9(1.1)	1.6(0.2)	1.5(0.2) ¹⁾
기타開發國	1.8(3.0)	17.6(3.4)	39.6(5.1)	36.5(5.7)	35.0(5.3)	29.0(3.0)	29.2(3.5)	32.7(4.1)
開發國 計	8.8(14.5)	45.8(8.8)	221.7(28.8)	152.1(23.6)	152.2(23.1)	468.0(48.0)	475.5(54.3)	417.7(52.8)
對西方圈 合計	60.6(100.0)	520.4(100.0)	771.0(100.0)	644.8(100.0)	657.5(100.0)	975.5(100.0)	843.3(100.0)	790.4(100.0)

註: 1) 北韓의 貿易相對國도 해당연도의 統計値를 발표하지 않아 그 이전 3년간 統計를 기준으로 IMF에서 추정한 것임.

2) 5개월 이하만 統計値가 이용가능하고 나머지 경우는 IMF에서 추정한 것임.

資料: 〈附表 3〉과 동일.